

200자 안내

금의 전쟁

혼다 야스하루 지음 / 장문평 옮김

20여년전 일본 야쿠자 두목을 살해해 전일 본열도를 흥분케 했던 '김희로사건'을 다룬 실화소설. 단순한 살인범죄의 차원을 넘어 재일조선인으로서 가졌던 차별과 설움에 대한 울분을 일본사회에 폭발시켰던 재일한국인문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희로가 왜 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를 법정진술, 수사개요, 증언집 등의 관련자료를 통해 밝혔다.

범우사 / A5신 / 282면 / 4000원

한국의 소리를 찾는다

최승범 지음

우리나라 옛 풍물이나 세시풍속과 관련된 소리, 자연의 소리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에세이. 월간 「객석」에 6년동안 연재했던 것을 화가 백순실의 판화와 함께 엮었다. 떡방아소리, 딱따기소리, 살림살이의 여운이 담긴 부엌문 삐거덕소리, 새끼꼬는 소리, 누에 뽕잎 먹는 소리, 벼룩 뛰는 소리 등등 농치기 쉬운 토속적인 우리의 소리들을 새롭게 발굴해내고 있다.

예음 / B5변형 / 254면 / 6000원

동장님 사진찍기

최래옥 지음

한양대 국문과 최래옥교수의 신앙생활 예화집. 국민일보에 '겨자씨'란 칼럼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았다. 교직을 '선생질'이라 하고, 기독교인을 '예수쟁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근거있는 충고를 던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며 느꼈던 세세한 감성들을 예화로 만들어 재미와 교훈을 선사한다.

국민일보사 / A5신 / 256면 / 3500원

껍데기를 벗고서 3

정현백 외 지음

「껍데기를 벗고서」 1, 2권에 이어 3권은 '여대생편.'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서려는 젊은 여대생들을 위한 자기발견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도로 기획, 여대생들이 대학생활

전반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표, 취업과 결혼의 문제 등 여대생들의 생활과 의식에 밀착한 주제들을 진지하고 설득력있게 다루고 있다.

동녘 / A5신 / 286면 / 4500원

白蓮佛敎論集

백련불교문화재단 엮음

불교문화를 복원하고, 불교정신을 배양하며, 불교인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재단이 소장 불교학자들의 논문을 모아 펴낸 것. 「깨달음의 길」(성철) 「우주 및 역사전개의 動因으로서의 業의 이해」(최봉수) 「諸經典에 보이는 海印三昧 小考」(전해주) 「중국 초기불교의 인간이해」(朴海鎭) 등 13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백련불교문화재단 / A5신 / 362면 / 7000원

몽골民俗

권오성 외 지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자 임동권(중앙대 명예교수) 단장을 포함한 5명의 사학·민속학자로 구성된 민속학회 조사단이 90년 8월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몽고를 답사하고 느낀 점을 기록한 소논문집. '민속음악' '민요' '기악' '신화' '백두산 전설' '식생활' '라마교' '민속춤' 등 우리 민족과 유사점이 많은 몽고와 몽고인들의 생활풍습 등을 알려준다.

북조리 / A5신 / 254면 / 4000원

무지개 (상·하)

D.H. 로렌스 지음 / 황의방·진영종 옮김

「아들과 여인들」 「채털리부인의 사랑」으로 널리 알려진 20세기 영국의 대표적 작가가 쓴 초기작품. 1차 세계대전중이던 1915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당시 노팅햄대학 교수의 부인이었던 프리다와의 사랑을 그린 것으로, 노팅햄대학에서 겪은 그의 대학생활과 교사생활 그리고 프리다와의 관계를 그린 가족연대기적 소설.

한길사 / A5신 / 356, 382면 / 각 5000원

마농의 샘

마르셀 빠솔 지음 / 유정희 옮김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작가의 작품으로, 물·가뭄·땅·혈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랑과 복수의 이야기로 엮여져 읽는 재미가 돋보이는 고전적 소설. 땅을 잃고 야생녀가 된 장의 딸 마농은 어느날 우연히 샘의 비밀을 엿듣게 되고, 침묵으로 동조한 마을 사람들과 위골랭을 상대로 처절한 복수를 펼치는데…….

문학사상사 / A5신 / 354면 / 5000원

태극권

표충실 지음

'유연성을 본질로 하는 중국의 훈련체계'로 일컫는 태극권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 사고의 침착성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이 책은 태극권의 여러 기법 가운데 신체의 완전건강을 지향하는 양가식 108 태극권의 훈련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작사진을 소개함으로써 초심자가 읽고 태극권을 익히기 쉽게 엮고 있다.

학민사 / A5신 / 252면 / 6000원

노동조합 임금교섭 어떻게 하나

한국노동교육협회 지음

매년 전개하는 임금인상투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지침서. 노동조합의 일반적 임무와 임금인상투쟁의 의의를 설명하고 임금의 진정한 본질과 임금체제 및 형태, 임금인상의 기준인 생계비에 대해 해설했으며, 풍부한 사례를 통해 임금인상투쟁의 전략과 전술도 소개하고 있다.

돌베개 / A5신 / 190면 / 3300원

조선동의어사전

리형태 지음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의 동의어를 체계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민 사전으로 90년 북한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을 영인한 것이다. 우리말에 풍부히 발달된 비슷한 말들과, 뜻은 같으면서 의미나 단어의 결합에는 구별이 뚜렷한 단어들의 쓰임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글 / A5신 / 276면 / 3800원

최후의 진단 (1·2)

아더 헤일리 지음 / 정성호 옮김

영국태생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에어포트」 「은행가」 「권력자들」 등의 소설을 발표했던 헤일리의 출세작. 주인공 닥터 죠피어슨은 노인이다 폭군적이고, 또 한번의 의료사고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자만심을 품고 있지만, 한 젊은 의사의 부패한 지배권에 도전하는 의학적 양심과 맞서게 된다. 종합병원의 실상과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우석 / A5신 / 272면 / 각 4200원

21세기, 한국의 모습이 보인다

안동민 지음

산업, 교육, 정치, 사회, 학생운동, 종교, 남북통일 등 각 분야에 걸쳐 한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는 책. 심리학자, 미래세계를 내다보는 초능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저자는 21세기에는 한국인이 국제통화로 통용이 되고, 건강제일주의가 도래 건강산업이 성시를 맞게 되는 한편 만화책이 출판시장을 장악한다는 등의 예언을 하고 있다.

신세대 / A5신 / 240면 / 4200원

편의점은 이렇게 경영하라

김경욱 지음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책은 한차원 다른 방법의 영업으로 국내 소매유통업을 잠식하고 있는 외국의 편의점들과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편의점의 개념, 체인의 테이터 관리시스템, 점포꾸미기 방법, 영업노하우, 필드서비스, 정보수집시스템 등 프랜차이즈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

우아당 / A5신 / 246면 / 4000원

하얀들꽃

이현주 지음

「알게 뭐야」 「날개달린 아저씨」 등의 청소년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현주목사의 장편소설. 부모를 불의의 사고로 모두 잃은 불행속에서도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동생 정섭까지 돌보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소녀가장 정순의 이야기가 자못 감동적이다.

햇빛출판사 / A5신 / 214면 / 3500원

번역

홍기만 지음

현재 MBC 외화번역 담당자로 있는 저자가 오랜 일선경험을 토대로 TV외화 번역의 이모저모를 살렸다. 전체 4장으로 나뉘 외화번역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비롯해 외화의 대사를 원어 그대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화에서 특별히 자주 접하게 되는 대사들을 모아 풀이하기도 했다. 외화번역과 일반번역과의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백수사 / A5신 / 364면 / 8500원

계간지

문학과 사회(1992년 봄)

[연속기획] 지금, 문학이란 무엇인가II ▲ 다시 문학성을 논한다(정과리) ▲ 왜 리얼리즘인가? (임우기) ▲ 문학과 이데올로기(홍성호) [테마서평] ▲ 역사, 이론, 그리고 지성사(조한욱) ▲ 심화된 '영화읽기'를 위한 책 읽기(임재철) [시] 이태수 / 김혜순 / 김정환 / 이영유 / 윤중호 / 이승하 [소설] ▲ 불의 얼굴(임철우) ▲ 이삭줍기(김병언) [오늘의 한국문학] ▲ 총평(편집동인) ▲ 시각적 인식의 두 유형(이창기) ▲ 관계의 해체 혹은 새로운 서사 전략(구모룡) ▲ 상황과 선택

(권오룡)

[비평논문] ▲육망의 근대적 형식(류철균) ▲한국 사회의 변동과 문화적 전통의 변형성(임재해)

문학과지성사 / A5신 / 376면 / 5000원

민중문예(1992년 봄)

[문학특집] ▲「대백산맥」과 장편소설의 새 지평(신승엽) ▲중견 여성작가들의 소설세계(전진희)

[창작자의 글] 문예운동의 매력과 현실주의(이경식)

[시] 태안사 가는 길 외 11편(조태일 / 고희렬 / 도종환 / 오봉옥 / 김태연)

[소설] 짧은 날의 선택(김하경)

[시나리오] 학락(배효룡)

[무용대본] 러시아에 관한 명상-두 노동자 이야기(김정환)

[논단] 국가와 민주주의(정영태)

민맥 / A5신 / 326면 / 5000원

현대소설(1992년 봄)

[소설] ▲梧桐의 숨은 소리여(박완서) ▲크리스탈 속의 도요새(최문희) ▲개망초 꽃 핀 사연(박용수) ▲그때 시라노는 달나라로 떠나가고(주인석) 외

[한국의 작가 10] 박완서편-가짜에 대한 혐오(김만수)

[자전적 사소설] 자본가여 단결하라(이순원)

[소설강의 3] 소설과 미술-문학적 구체화의 예술(임영방)

[외국의 현대소설 10] 나이지리아편-검은 인종의식의 기록과 토속어(권명식) 아프리카문학의 자율성을 위하여(파누엘 아쿠부에게 에게 주루)

[이론과 실제] ▲오리엔탈리즘 再考(에드워드 W. 사이드) ▲한국소설사 6(김윤식·정호웅)

현대소설사 / A5신 / 382면 / 5000원

창작과 비평(1992년 봄)

[지상토론] 사상적 지표의 새로운 모색(고은 / 류병덕 / 박현채 / 서경석 / 신광영 / 유기홍 / 임형택 / 장기표 / 정성진 / 한정숙) ▲ '시와 리얼리즘'에 대하여(염무웅) ▲주홍글자와 미국문학의 특성(한기욱) ▲민주주의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이병천) ▲공산주의 이후의 맑스주의 철학(J. 매카니)

[대담] 세계사 속의 한국전쟁과 통일한국(B. 커밍스 / 백낙청)

[특집] 신예시인 10인선(성석제 / 양선희 / 이형권 / 이원규 / 박용하 / 이진명 / 육봉수 / 정종목 / 신동호 / 박현수)

[시] 봄편지 외 6편(박형진)

[소설] ▲집시 아저씨(김영현) ▲구르는 돌

(유재현) ▲장편연재 들(윤정모)

[서평] 민영 / 우찬제 / 조환규 / 김정미 창작과비평사 / A5신 / 508면 / 5000원

실천문학(1992년 봄)

[특별기획] '자유주의 문학'을 다시 읽는다

▲이청준 문학의 의미와 한계(윤지관) ▲황동규가 30여년 동안 걸어온 길(유중하) ▲정현종론(이병훈)

[시] 황지우 / 김용택 / 나종영 / 최두석 / 강형철 / 정인화 / 나희덕 / 박라연 / 정윤천 / 김영산

[소설] ▲목마른 신들(현기영) ▲섬(한승원) ▲첫눈(김명환)

[장편연재] 海賊(김중태)

[작가발굴] 재북시인 김조규의 시세계(권영진)

[논문] 북한문학의 전개과정과 과학적 문학사의 과제(김재용)

실천문학사 / A5신 / 356면 / 5000원

시와 시학(1992년 봄)

[시와 시인을 찾아서] 미당 서정주 편

[특별연재] ▲「수석영가 V」(박두진) ▲「시로 쓰는 자서전」(조병화)

[특집] 80년대 시인선(고영조 / 김선평 / 박상천 / 이문재 / 장석남 / 권대웅 / 김완화 / 오태환 / 이상호 / 김유선)

[그림으로 그리는 현대시] 산유화(이만익)

[현대시인 집중연구] 이형기 편

[신작특집] 이승훈 / 조창환 / 김중식 / 김규규 / 정규화

[문제작 재조명] 김춘수 「꽃」

[신인작품 당선작] 성인해 / 조애린

[이규보 특집] ▲이규보와 생활문학(김경수) ▲이규보의 처신과 시세계(이동철) ▲이규보 시 감상

[초대시단] 김석규 / 이관목 / 우미자 / 서지월 / 김성옥 / 조철우

[예술칼럼] ▲시와 음악과의 만남(김미애) ▲역사의 들길에서 만난 화가들(이석우)

[신작소시집] 연작장시 「약속의 땅, 기약 없는 세월(中)」(박이도)

시와시학사 / A5신 / 356면 / 5000원



아직도 대지작업을 손수 하시나요? 저희 편집부에 맡겨주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원고만 주시고 책을 받아보세요!

매킨토시로
대지작업 없는

신속한

전자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입력·편집·제판·인쇄를 한곳에서 처리

시설내용

편집부 인쇄부

▶ 전자출판 시스템

▶ Miller 2칼라 2대

▶ 유능한 편집인

▶ Rolend 4칼라 1대

제판부

▶ 4X6전지 8색기 2대

▶ 단색스캐너 설치

▶ 원색제판의 모든 것 해결

운전부

▶ 4X6전지 8색기 2대

코팅부

▶ 전자동 리미네이팅(무광, 유광)

▶ 전자동 U,V 코팅



삼정프로세스

Sam Jeong Process Co.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17
전화 704-8384~5 팩스 717-7311